

정광순 씨, 대한결핵협회에 1천만원 기탁 “기회 닿을 때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도울 터”

글과 사진 ▣ 박연숙(본지기자)



지난 9월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정광순 씨는 결핵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1천만 원을 대한결핵협회에 기탁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성규 회장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소강당에서 조출한 전달식을 갖고, 정광순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기부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겼다.

1957년부터 3년간 결핵을 앓은 적이 있다는 정광순 씨는 기부를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당시 중구 회현동에 자리하고 있던 대한결핵협회를 찾아 결핵 약 피스와 스트렙토마이신을 무료로 받아 결핵을 치료했고, 그때의 고마움을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언젠가 여력이 된다면, 꼭 어려운 결핵환자를 돕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때 미용실을 운영했던 정광순 씨는, 매일 같이 독한 약을 다루며 힘들게 일하고 아



이들 키우느라 내몸 돌볼 겨를이 없었던 때에 결핵이 찾아왔다고 한다. 심한 각혈은 두려움 그 자체였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한 채 이증으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그저 못 먹어서 생긴 병이려니 싶어, 파스 복용 및 스트렙토마이신 주사 외에 어려운 살림 살이에도 고기만큼은 꼭 챙겨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웃음 짓는다.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애들 키우며 살다보니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이제 아이들도 장성했고 형편도 어렵지 않으니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돕고 싶다”며 지속적인 기부의사를 밝혔다.

현대의학에서 결핵이 고치기 힘든 병은 아니다. 또 예전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병인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병 낫는 데만 치중할 수 없어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핵환자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큰돈이 아니라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정광순 씨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결핵협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부문의 : 대한결핵협회 홍보과 02-2636-5272) ♣

